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9. 19.(목) 배포 시 배포 2024. 9. 19.(목)

농식품부, 호우 대비 농작물 피해 최소화 노력 당부

- 농식품부, 9월 19~21일 호우에 대비하여 긴급 상황회의 개최
- 지자체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에 농업분야 취약시설 사전점검 등 선제적 조치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9(목) 오후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였다.

*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15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의 비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농업혁신실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 지주시설, 시설하우스와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을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8월 이후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저수지, 배수장, 과수원, 축사, 가축매몰지, 산사태지역 등 7월 호우 피해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지 수목·협잡물·수초 제거, 배수장 부품교체, 배수로 준설, 과수원 주변 배수로 정비, 제한수위 준수, 산사태지역 응급복구 등을 긴급 정비하도록 조치하였다.

* (점검결과) 저수지 약 520여개소, 배수장 약 1,370여개소, 배수로 정비 약 4,100㎞, 과수원 1,580여개소, 시설하우스 410여개소, 축사시설 1,350여개소, 과수 화상병 매몰지 590여개소, 가축 매몰지 60여개소, 산사태 1,570여개소 등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호우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에 저수지 사전방류, 배수시설 사전점검, 과수 지주시설, 축사 지붕과 주변 배수로 점검 등을 강화하고, 특히,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등 안전관리요령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재원 (044-201-1791)
		담당자	사무관	김일수 (044-201-179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태풍 · 호우 대비 농작물 등 안전관리요령



